

2020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북한 및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여 통일 관련 연구 및 방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유효 표본: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 조사 방법: KBS국민패널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
- 표본 추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단순 무작위 추출
(2020년 7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 내용: 북한 및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 응답률: 전체 응답률 9.5% (총 10,524명 메일 발송)
- 조사 기간: 2020년 7월 31일(금) ~ 8월 4일(화) (5일간)
- 조사 주체: KBS 남북교류협력단
- 조사 기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본 조사는 2018~2019년에는 전화조사로, 2020년은 'KBS국민패널'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됨. 조사방법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추이 비교시 참고 필요.

2. 표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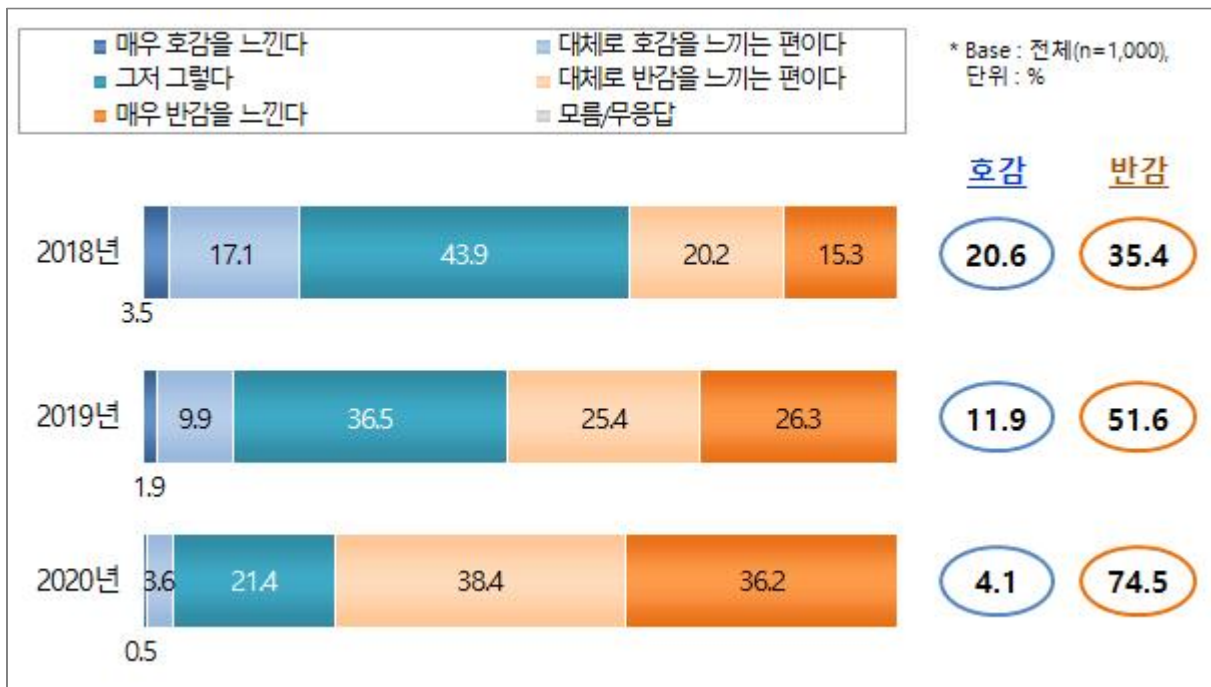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전체	(1,000)	100.0
지역별	서울	(191)	19.1
	인천/경기/강원	(340)	34.0
	부산/울산/경남	(153)	15.3
	대구/경북	(99)	9.9
	대전/충청/세종	(106)	10.6
	광주/전라/제주	(111)	11.1
성별	남성	(497)	49.7
	여성	(503)	50.3
연령별	20대	(172)	17.2
	30대	(161)	16.1
	40대	(193)	19.3
	50대	(199)	19.9
	60세 이상	(275)	27.5
직업별	화이트칼라	(400)	40.0
	블루칼라	(109)	10.9
	자영업	(56)	5.6
	학생	(75)	7.5
	전업주부	(156)	15.6
	농/임/어/축산업	(7)	.7
	무직/퇴직/실업상태	(107)	10.7
	기타	(91)	9.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7)	14.7
	200만원~400만원 미만	(351)	35.2
	400만원~600만원 미만	(256)	25.6
	600만원~800만원 미만	(119)	11.9
	800만원 이상	(72)	7.2
	무응답	(54)	5.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15)	21.5
	대학 재학 이상	(785)	78.5

3. 조사 내용

1)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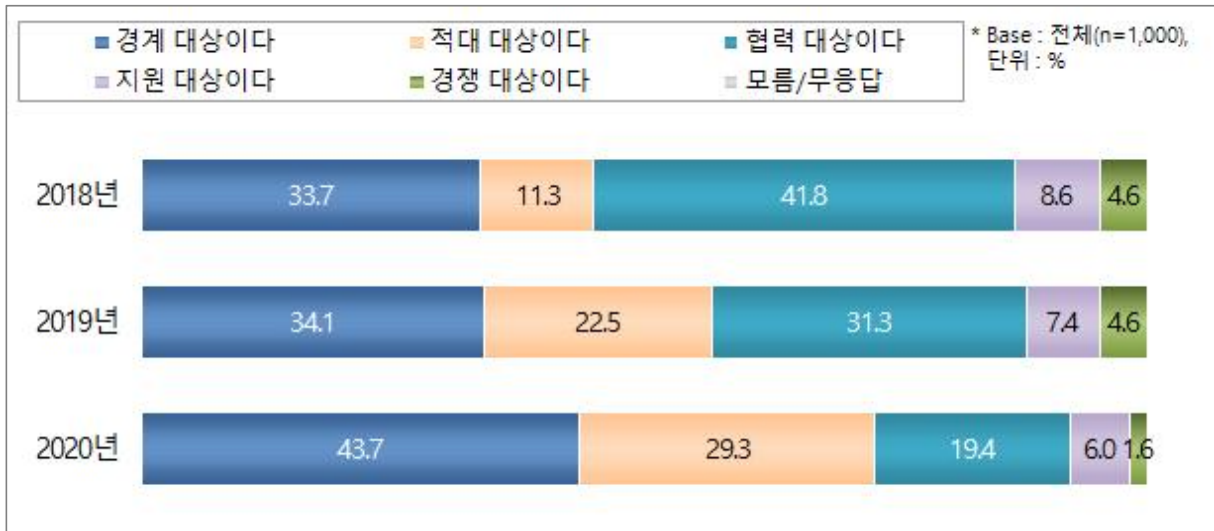
①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문1)

-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4.5%임.
-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2018년(35.4%), 2019년(51.6%)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22.9%p)하였으나, 2017년(88.9%)보다는 낮은 수준임.



②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문2)

- 북한은 ‘경계 대상’(43.7%)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적대 대상’(29.3%)이라는 의견이 많음.
-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2018년(33.7%)과 2019년(34.1%)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43.7%)에 증가(+9.6%p)함.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2018년(11.3%), 2019년(22.5%)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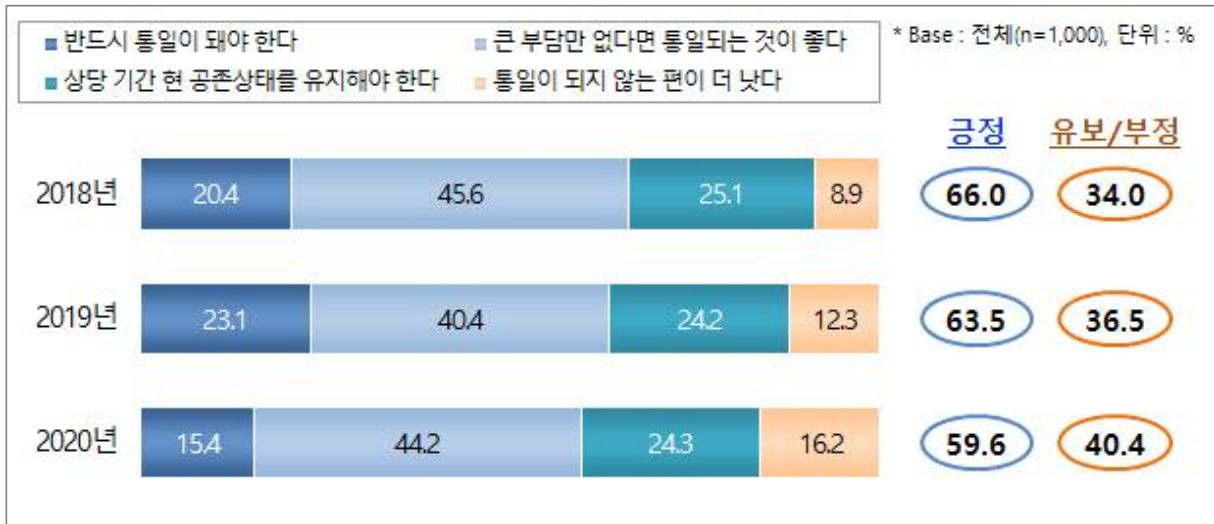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①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문3)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9.4%로, 응답자 2/3 이상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매우 관심이 있다’: 17.1% +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52.3%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75.9%), 2019년(73.0%), 2020년(69.4%)로 감소 추이가 지속됨.

②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문4)

- 통일에 대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44.2%)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4.3%)는 의견이 많음.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은 59.6%로 나타나, 2018년(66.0%), 2019년(63.5%)에 이어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③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문5)

- 통일 시기에 대해 ‘11년~20년 이내’(23.7%)를 가장 많이 응답함. 다음으로 ‘21년~30년 이내’(19.9%), ‘30년 이후’(19.1%)가 비슷하게 나타남.
- 시기에 관계없이 ‘통일이 가능하다’는 77.2%로 2019년 조사(79.4%)와 비슷함.
- 통일 시기를 ‘20년 이내’로 예상하는 응답은 38.2%로, 2019년 조사(55.9%)보다 낮아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비슷하나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 ‘5년 이내’: 2.9%, ‘6년~10년 이내’: 11.5%, ‘11년~20년 이내’: 23.7%

④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문6)

-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50.8%)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치·군사적 혼란’(21.9%)을 응답함.
- 최근 3년간 조사에서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응답(2018년 47.9%, 2019년 47.2%, 2020년 50.8%)이 가장 높음.

⑤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문7)

- 통일의 선결과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43.8%)과 ‘군사적 신뢰 구축’(42.1%)을

주로 응답하고 있음.

- 2019년과 비교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2019년 61.5%→2020년 43.8%)은 크게 감소(-17.7%p)함.

한편,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2019년 36.7%→2020년 29.6%)은 7.1%p 감소하였으나,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019년 19.1%→2020년 25.3%)와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 방문’(2019년 14.8%→2020년 19.4%)은 각각 6.2%p, 4.6%p가 증가함. 경제 교류보다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더 우선하는 의견이 높아짐.

⑥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문8)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없다’(59.0%)는 의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29.8%)이 많음.
-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없다’(2019년 38.4%→2020년 59.0%)는 응답이 크게 증가(+20.6%p)한 반면, ‘미국’(2019년 49.0%→2020년 29.8%)은 큰 폭(-19.2%p)으로 감소함.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

⑦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문9)

-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부담할 경우 ‘연소득의 1~5% 미만’(29.3%)과 ‘연소득의 1% 미만’(26.5%)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 비용에 관계없이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63.0%로, 2019년(73.8%)보다 10.8%p 감소함.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①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문14)

- 북핵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65.4%)이라는 의견이 높고, 다음으로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은 29.0%로 나타남.

-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69.1%='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 65.4%+'무력으로 해결될 것' 3.7%)이 긍정적인 전망(30.9%='원만하게 해결될 것' 2.0%+'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 29.0%)보다 2배 이상 높음.
-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증가하는 추이(2018년 44.7%, 2019년 60.3%, 2020년 69.1%)가 지속됨.

②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문15)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30.0%)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29.2%)가 비슷함.
-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8년(29.9%), 2019년(27.6%)과 비슷한 편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폭씩 증가하는 추이(2018년 19.7%, 2019년 24.7%, 2020년 29.2%)를 보임.

③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문16)

-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의 연계에 대해 '북핵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42.2%)는 의견이 많고, 다음으로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37.4%)는 의견임.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2018년 29.7%, 2019년 39.2%, 2020년 42.2%)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④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문20)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견 중 '유엔 안보리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52.7%)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북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 환경 조성'(47.3%)보다 5.4%p 높음.

⑤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문19)

-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40.5%)는

의견이 가장 많음. 한편, 국제정세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32.5%)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인 영향’(27.0%)을 줄 것이라는 의견보다 5.5%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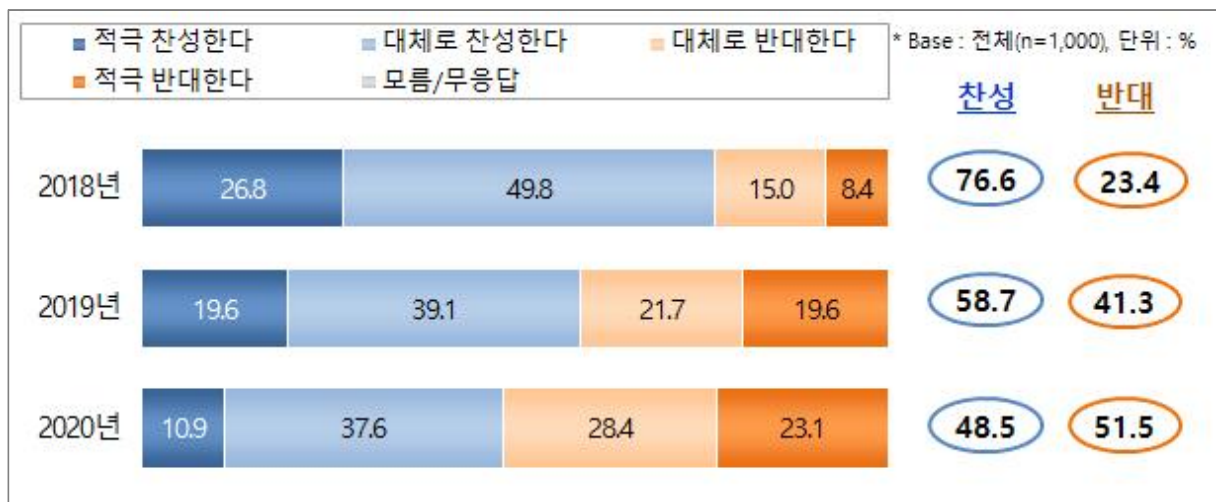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①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문23)

-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4.1%(‘매우 불안하다’ 17.3%+‘약간 불안하다’ 46.8%)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의견은 2019년(61.6%)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②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문22)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51.5%='적극 반대' 23.1%+'대체로 반대' 28.4%)와 ‘찬성’(48.5%='적극 찬성' 10.9%+'대체로 찬성' 37.6%)이 비슷하게 나타남.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은 집권 2년차(2018년 76.6%)보다 크게 감소(-28.1%p)함.

③ 대북 교류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문10, 문11, 문12, 문13)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대(對) 북한 식량지원의 제한적 진행, 5·24 조치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재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금강산 관광 사업’(60.6%), ‘개성공단 사업’(51.0%), ‘식량지원’(52.5%)에 있어 모두 ‘조건부로 재개/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5·24조치를 유지해야 한다’(52.7%)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북교류 사업 및 정책	교류 재개/확대	조건부 재개/확대	교류 중단/폐쇄
금강산 관광 사업	즉시 재개 (13.5%)	조건부로 재개 (60.6%)	계속 중단 (25.9%)
개성공단 사업	전면적으로 재개 (19.5%)	조건부로 재개 (51.0%)	현 폐쇄상태 유지 (29.5%)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큰 폭으로 확대 (5.6%)	조건부로 확대 (52.5%)	이전처럼 중단 (41.9%)
5·24 조치	5·24 조치 해제 (9.3%)	5·24 조치 완화 (38.1%)	5·24 조치 유지 (52.7%)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북한 식량지원을 ‘조건부로 재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임.

▶ 금강산 관광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18년: 68.5% → 2019년: 62.7%(−5.8%p) → 2020년: 60.6%(−2.1%p)

▶ 개성공단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18년: 60.2% → 2019년: 56.8%(−3.4%p) → 2020년: 51.0%(−5.8%p)

▶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조건부로 확대’

– 2018년: 65.1% → 2019년: 59.1%(−6.0%p) → 2020년: 52.5%(−6.6%p)

○ ‘5·24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낮아지는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완화’ – 2018년: 47.9% → 2019년: 45.3% → 2020년: 38.1%

– ‘유지’ – 2018년: 37.7% → 2019년: 41.6% → 2020년: 52.7%

④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문21)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공감’(56.8% = ‘매우 공감한다’ 15.3% + ‘대체로 공감한다’ 41.5%)한다는 의견이 ‘비공감’(43.2%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3%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8.9%)보다 13.6%p 높음.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①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문17)

-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60.1% = ‘전혀 성과가 없었다’ 19.1% + ‘별로 성과가 없었다’ 41.0%)는 의견이 ‘성과가 있었다’(39.9% = ‘매우 성과가 크다’ 3.9% +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35.9%)는 의견보다 높음.
- 2018년 조사 이후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 ▶ 2018년 : 46.6% → 2019년 : 55.8%(+9.2%p) → 2020년 : 60.1%(+4.3%p)

②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문18)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1.7%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6.3% + ‘어느 정도 개최될 필요가 있다’ 45.4%)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이후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 2018년 : 86.1% → 2019년 : 78.7%(-7.4%p) → 2020년 : 71.7%(-7.0%p)